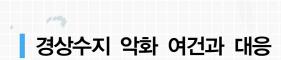
국내외 경제

현안과 과제

2010. 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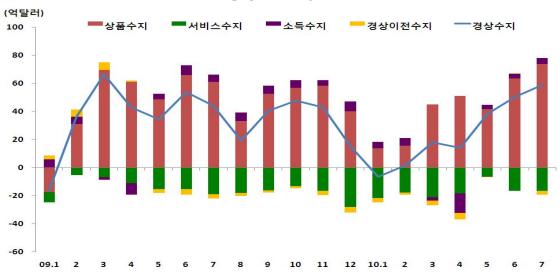




I. 경상수지 흑자 6개월 연속 지속

- 7월중 경상수지가 58.8억 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인 2009년 3월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감
- 2010년 7월 중 경상수지 흑자는 6월 50.4억 달러에서 58.8억 달러로 확대되고 2010년 1월부터 7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75.5억 달러를 기록
 - ·서비스수지는 환율하락에 따른 여행증가로 인해 7월 16.6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6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상품수지 흑자폭은 크게 확대됨

< 경상수지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 O 상반기 세계 경기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출 호조로 상품수 지 흑자폭이 확대되고 이는 경상수지 흑자폭을 확대
- 수출이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서 7월중 상품수지는 73.8억 달러를 기록하고 1~7월까지 상품수지는 305.3억 달러를 기록
 - · 반도체 및 선박 등에 수출 호조 의해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6월의 64.1억 달러서 7월 73.8억 달러로 증가하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

< 상품수지 추이 >

(단위: 억 달러.%)

	200	09년 ^P	2010년 ^P				
	6월	7월	5월	6월	7월		
상품수지	66.0	61.1	41.7	64.1	73.8		
수출	315.6 (-22.3)	335.2 (-20.6)	386.6 (38.6)	415.7 (31.8)	431.7 (28.8)		
수입	249.6 (-32.9)	274.1 (-34.4)	344.9 (49.9)	351.8 (41.0)	357.8 (30.7)		

자료: 한국은행.

주 : 1) 통관기준 수출입에서 소유권변동, 운임·보험료 등을 조정한 국제수지기준 수출입

2) ()내는 전년동기비 증감률

Ⅱ. 하반기 여건 악화

) 하반기 경상수지는 대내외 역건 악화로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 서비스 수지 적자폭 확대, 원화가치 상승, 원유 및 원 자재 가격 상승, 교역조건 악화 등은 경상수지 흑자폭 축소의 원인으로 작용

O 하반기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

- 하반기 글로벌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에 따르는 수출 증가세 둔화가 예상
 -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기선행지수가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나 타내어 하반기 경기 회복세는 약화되어 수출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
- 주요 선진국의 소매판매 회복도 지연되고 있음
 - ·미국, 유로, 일본의 소매판매 증가율은 1/4분기 각각 2.0%, 0.3%, 4.7%를 기 록했으나 2/4분기 1.0%, -0.2%, 3.2%로 감소세를 나타냄

< 선진국 및 신흥국의 경기선행지수1) >

77	2010년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미국	101.4	102.2	102.7	103.1	103.1	103.0			
영국	104.1	104.4	104.4	104.2	103.9	103.5			
프랑스	102.6	102.5	102.3	102.1	101.8	101.5			
일본	101.3	102.1	102.6	102.9	103.0	103.1			
중국	103.8	103.7	103.4	103.1	102.7	102.3			
인도	101.9	101.8	101.6	101.3	100.9	100.5			
브라질	100.0	100.1	100.2	100.3	100.3	100.3			
OECD 평균	102.2	102.8	103.2	103.4	103.5	103.4			

자료: OECD

< 선진국의 소매판매 추이 >

(%)

2

771		200	2010년			
국가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1/4 분기	2/4 분기
미국	-1.7	0.0	1.8	1.8	2.0	1.0
유 로	-0.9	0.0	-0.1	0.1	0.3	-0.2
일 본	-3.8	-2.9	-1.3	-0.2	4.7	3.2

자료: 미 상무부, 일본 경제산업성, Eurostat; Reuters. 주: 1) 일본은 전년동기대비

2) 미국과 유로는 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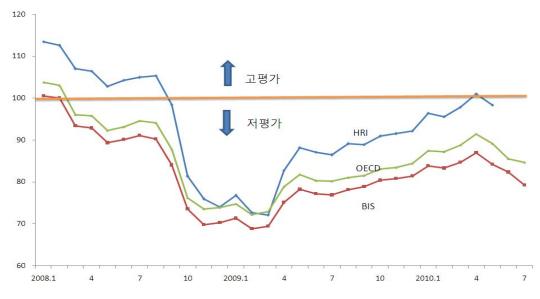
현안과 과제 🔻

¹⁾ 경기선행지수(CLI; Composite Leading Indicators)는 산업활동, 주택동향, 금융·통화현황, 국내총생산(GDP)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해 4~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100 이 상에서 상승하면 경기팽창을, 하락하면 경기하강을 의미하며 100 이하에서 상승하면 경 기침체에서 회복을 의미함

O 하반기 원화가치가 상반기에 비교해 상승 할 것으로 예상

- BIS2), OECD3), HRI4) 추정 실질실효환율지수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저평가된 상태에 머물렀으나 하반기에는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저평가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 요인 소멸
 - ·원/달러 환율이 균형 수준보다 저평가 되면 수출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원화로 표시된 수입상품의 가격은 상승하여 수입이 억제되어 상품 수지 흑자를 확대하고 이는 경상수지 흑자 요인으로 작용
 - ·최근 7월 BIS와 OECD 실질실효환율지수가 한국은 각각 84.7, 79.2, 미국은 97.2, 93.7을 기록함에 따라 원/달러는 13~15% 추가 하락할 수 있음
 - ·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향후 원/달러 환율 은 추세적인 하락이 예상

< BIS, OECD, HRI 실질실효환율지수 추이 >



자료: BIS, OECD, 현대경제연구원.

주 : HRI 실질실효환율지수는 주요 교역국인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홍콩, 싱가포르 6개국 만을 포함하여 산출하였음. 따라서 OECD, BIS 실질실효환율과는 차이가 있으나 추세는 동일하게 나타남.

²⁾ BIS는 2005년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교역량을 변동 가중치로 적용하여 27개국의 국별 실질실효 화율을 산출

³⁾ OECD의 경우, 2005년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교역량을 변동 기중치로 적용하여 46개국의 국별 실 질실효환율을 산출

⁴⁾ HRI 경우, 1995년부터 2010년 5월까지의 주요 교역국 6개국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1995년 이후 경상수지 균형에 가장 근접한 시점인 1995년을 기준 시점으로 삼음

○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 지속

- 8월 말 70달러 초반까지 하락한 두바이 유가는 4/4분기에는 8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
 - · 2010년 상반기 두바이 유가는 배럴당 77.1달러로 4월 83.6달러까지 올랐으나 최근 미국 더블딥 우려 확산으로 8월 25일 70.6달러까지 하락
 - · 그러나 CERA 전망치에 따르면 하반기 두바이, WTI 유가는 각각 3/4분기 78.8달러, 82.0달러, 4/4분기 82.4달러, 8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CRB 선물지수5)도 8월 중 잠시 하락세를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최근 증가 추세에 머물고 있음에 따라 향후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 ·6월 249p까지 하락했던 CRB 선물지수는 8월 초 279p까지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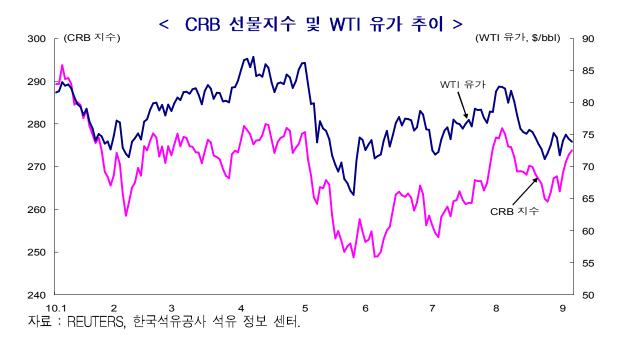
< CERA 유가 전망 >

(단위: \$/bbl)

	2010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Dubai 유가	75.97	78.06	78.81	82.43				
WTI 유가	78.83	77.80	82.00	85.00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 정보 센터. 해외 주요기관 유가전망

주 : 2010년 1/4분기, 2/4분기는 분기 평균치이고 3/4분기, 4/4분기는 2010년 8월 2일 CERA 전망치로 기준유가 기준임.



⁵⁾ 미국의 상품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콩 등의 곡물, 원유, 귀금속, 오렌지 주스 등 21개 품목의 상품선물 시세를 지수화한 것으로 향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를 나타내 줌

O 수입단가지수가 수출단가지수⁶⁾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교역조건 악화

- 수입단가가 수출단가에 비해 빠르게 상승
 - ·수입단가지수는 상승세를 나타내다 6월 하락하였으나 수출단가지수는 5월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냄
 - · 2010년 하반기 이후부터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수입단가지수가 빠르게 상승하여 수출단가지수 상승세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교역조건 악화 추세는 상품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키고 이는 경상수지 흑자폭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순상품교역조건⁷⁾은 4월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으나 5월 하락세로 반전, 6월 소폭 상승
 - ·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하반기 교역조건이 상반기에 비해 더욱 악화 될 것으로 예상

< 수출단가지수 및 수입단가지수 추이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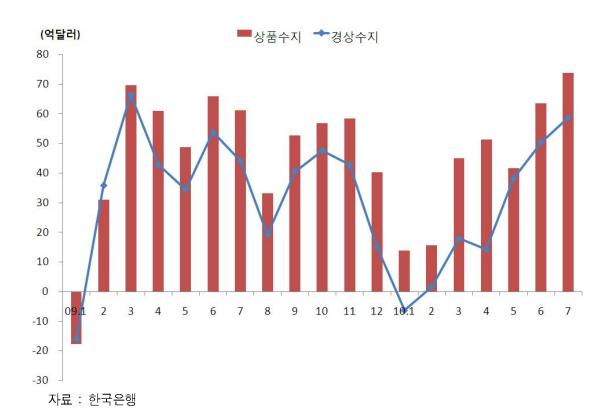
현안과 과제 -----5

⁶⁾ 수출(수입)단가지수는 수출(수입)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

⁷⁾ 순상품교역조건은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나타내며 수입단가지수에 대한 수출단가지수의 비율을 의미

- O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서비스 수지 적자 확대로 경상수지 흑자는 축소될 전망
- 1) 상품수지는 수출 증가율 저하와 수입증가율 상승으로 흑자폭 축소
- 수출은 세계 경기회복세가 하반기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수출 증가 세 둔화가 예상
 - •1~7월까지의 수출증가율은 32.8%를 기록했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수입은 원/달러 환율 하락,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하반기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평가절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수요 증가로 수입도 증가할 전망

<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 추이 >



2)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 수지 악화로 서비스 수지 적자는 확대

-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원화가치 절상으로 해외여행 증가 및 유학 수요 증대, 사업 서비스 적자 규모 확대 등으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확대될 전망
 - ·해외 관광객 수가 2010년 상반기 2월부터 7월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며 7월 해외 관광객 수가 122만 3,723명으로 올해 최대치 기록
 - ·사업서비스8)는 서비스 수지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6월과 7월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는 각각 12.9억 달러, 10.8억 달러를 기록, 사업서비스업 경쟁력이 취약하여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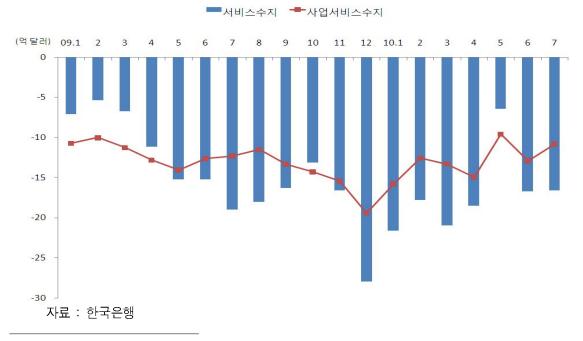
< 국민 해외 관광객 수 >

	201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해외 관광객 수	1,118,261	908,103	950,185	935,904	1,023,815	997,597	1,223,723
증가율(%)	37.6	20.5	35.3	27.4	38.8	36.4	22.8

자료 : 한국관광공사

주 :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 서비스 및 사업서비스 수지 추이 >



⁸⁾ 사업서비스란 법률, 회계, 컨설팅, 광고,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등과 같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총칭으로 고급 인력과 노하우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포함

Ⅲ. 시사점과 과제

- O (시사점) 세계 경기 둔화,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교역조건 악화, 원화 가치 상승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하반기 이후 예상되는 경상수지 여건 악화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 필요
- (과제) 원화 환율의 변동폭 축소, 수출 틈새시장 개척, 국내 관광 상품 개발,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 지속 등이 필요

- 첫째, 원화 환율의 변동폭 축소

· 환율 급변동 방지를 위해 정부의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화 환율 변동폭 축소

- 둘째, 수출 틈새시장 개척

- ·경기 호조 지역의 특성 및 문화를 파악하여 지역별 맞춤 상품 개발을 통한 수출 증가 및 틈새시장 개척
- ·고성장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중동, 남미, 인도 등의 신흥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을 강화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수출 진흥 대책을 수립

- 셋째, 국내 관광 상품 개발

-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개발 및 맞춤형 관광마 케팅 추진
- · 의료 서비스와 관광 산업을 융합하여 의료-문화 관광 산업 추진 등 관광 사업의 다양화와 고급화로 외국인의 관광과 의료 서비스 수요를 흡수

- 넷째,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 지속

-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신상품 개발 및 고품질 제품 생산 확대
- ·환경 및 기술규제의 수출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친환경 신제품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김민정 연구위원(2072-6212, kimmj@hri.co.kr)